[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도대체 박준은 어째서 꼭 불을 밝혀 놓아야 잠이 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전짓불을 보고는 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까?

"중요한 걸 물으시는군요."

잠시 입을 다물고 있던 김 박사는 그동안 나에게서 그런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기라도 한 듯 이번에는 박준의 버릇에 대해 다시 설명을 시작했다.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야 물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것도 다른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병증의 하나임엔 틀림없지요.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찰로는 영 그 원인을 분석해 낼 재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 비로소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환자가 그토록 어둠을 싫어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그 어둠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둠으로부터 연상되는 어떤 다른 공포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그 전짓불 같은 것이 바로 그런 거지요. 환자가 진짜 발작을 일으키도록 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것은 어둠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 나타난 전짓불이었단 말씀입니다. 환자에겐 그 어둠이라는 것이 늘 전짓불을 연상시키는 공포의 촉매물이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문제는 박준이 무엇 때문에 그 전짓불에 공포를 느끼게 되는지 그걸 알아내는 것이겠군요. 그게 바로 박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최초의 갈등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전짓불의 비밀이야말로 박준 씨의 치료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지요."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짓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그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공포감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전짓불의 공포라는 것이 박준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 아직 설명하실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셈이지요."

"역시 그의 소설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게 어떨까요?"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짓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 그러나 김 박사는 박준의 소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보이려 하지 않았다.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짓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

(중략)

– 이달의 화제작, 화제 작가.

신문지는 벌써 이태쯤 전에 발간된 어떤 주간지의 한 조각이었는데, 거기엔 우선 그런 제호가 크게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제호 한쪽으로 그 달에 발표된 박준의 소설이 한 편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합평되어 있고, 다른 한쪽엔 그 달의 화제 작가로서 박준을 인터뷰한 기사가 실려 있었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신문지 조각을 못에서 빼어 냈다. 그러나 금세 실망이 되고 말았다. 기사는 별로 읽을 만한 곳이 남아 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기사가 다른 조각으로 찢어져 나가 버리고 없었다. 찢어져 나간 조각들은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미 휴지로 사용이 되고 만 모양이었다. 남아 있는 것은 그의 인터뷰 기사 중의 몇 마디뿐이었다. 나는 그것이나마 찢어지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남은 데서부터 기사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 박준은 이야기를 꽤 길게 계속하고 있었다.

[A]

–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난 아주 기분 나쁜 기억을 한 가지 가지고 있다. 6 · 25가 터지고 나서 우리 고향에는 한동안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찰인지 공빈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마을을 찾아 들어왔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우리 집까지 찾아 들어와 어머니하고 내가 잠들고 있는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이 부시도록 밝은 전짓불을 얼굴에다 내리비추며 어머니더러 당신은 누구의 편이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때 얼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전짓불 뒤에 가려진 사람이 경찰대 사람인지 공비인지를 구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대답을 잘못했다가는 지독한 복수를 당할 것이 뻔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짓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 지금 당신 같은 질문을 받게 될 때가 바로 그렇다…….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부터였다.

– 이청준, 「소문의 벽」 –

Q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②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02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신적 외상(trauma)은 충격적 경험의 기억이 무의식에 잠재되었다가 정신적 병증의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모습을 드러낸다. 그 기억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이를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정신적 병증의 치유에서 중요한 관정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에 대해 '말문 트기'가 요구된다. 이런 점에서 소설은 개인의 아픔은 물론 사회적 병증을 치유해 주는 개인적 · 사회적 말문 트기의 하나라 할 수 있다.

①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② '전짓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와 한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짖는다.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鄕)」 –

(나)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
고독한 이마 그리고 날카로운 부리.
얼어붙은 지상에는
그 어디에도 낱알 한 톨 보이지 않지만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
검을 테면
철저하게 검어라. 단 한 개의 깃털도
남기지 말고……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
나는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빈 가지 끝에 홀로 앉아
말없이
먼 지평선을 응시하는 한 마리
검은 까마귀가 되리라.

– 오세영, 「자화상 2」 –

* 형형한: 광채가 반짝반짝 빛나며 밝은.

(다)

[A]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

[B]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냈던 것이다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C]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D]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E]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0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Q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자아 성찰의 주제를 담은 현대시에서는 시적 자아가 분열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아 성찰을 통해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단절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려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지만 (가)의 화자는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자아의 부정적, 긍정적 면모를 발견한 후 이들을 상징적 시어로 표현하고 있고, (나)의 화자는 시선을 바깥으로 돌려 자신의 삶의 태도를 외부의 상징적 존재에 투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 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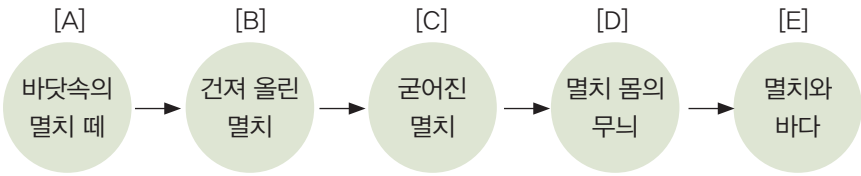
Q 06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07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시상 전개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④ [D]는 바닷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심작은둘 노파는 폐결핵과 장질부사로 입원하였지만,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 폐허나 다름없는 제3병동에 수용된다. 노파의 간호를 위해 그의 딸인 강남옥 처녀는 노파의 침대에서 숙식을 같이 하다가 결국 장질부사에 걸린다. 의사 김종우는 강남옥을 무료로 진찰해 주고, 매트도 구해 줘 모친과 함께 치료를 받게 한다. 하지만 수납계 직원이 이를 눈치챈다.

내과 과장은 그녀가 누운 매트에 대해서는 수납계 직원처럼 그리 수상쩍게, 또 못마땅하게 여기진 않았다. 오히려 그런 사정이 있으려니 하는 눈짓으로 싱긋이 웃고만 돌아갔다. 내과 과장이 떠나자 이내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쳇, 매트 얘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늙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A] 멀리서 하늘 울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가, 허물어져 가는 제3병동의 유리창을 마구 때렸다. 헐렁한 창문 틈바구니마다 빗물이 새어들어 유리를 타내리고, 강남옥 처녀가 누워있는 쪽 천장 구석도 차츰 젖어들기 시작했다. 그러한 빗속에서도 불도저는 내처 부르릉거렸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만은 그 둔탁스런 불도저 소리도 환자들에게는 그다지 거슬리지 않는 모양이었다. 한결같이 희멀건 눈들이, 쏟아지는 빗발을 심심치 않게 내다보는가 하면, 그 속에서 부르릉대는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요컨대 그들은 병원생활이 무척 괴롭고 지루했던 것이다. 가뜩이나 전염병 환자만이 늘어져 있는 허물어져 가는 3등 병실에서, 그저 치료비 독촉장이나 받을 뿐, 누구 하나 꽃이라도 들고 깍듯이 찾아 주는 사람도 없는 3등 인간인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때로는 비도 반가웠고 불도저 소리도 거슬리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따금 우르릉 하는 먼 천둥 소리에, 숫제 살아 있는 하늘의 방향이라도 잡아 보려는 듯, 눈을 번쩍 뜨는 환자도 있었다. 말하자면 누에가 잠을 잘 때 고개만은 치켜들고 있듯 빗소리에 한결 조용해진 병실 안 사람들도 신경은 내처 날카롭기만 했던 것이다.

다만, 넓적한 마스크를 한 간호원이 가끔 와서 보고 가는 오롱댁 심작은둘 노파만이, 또닥또닥 떨어져 들어가는 피를 받으면서 그러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샅샅이 눈여겨보았다. 매트 위에 누웠을 때도, 천장을 향해 있는 그녀의 핏발 선 커다란 눈은 마치 병실 안 전체를 삼키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꽉 다문 입은 헤일 수 없는 말들을!

……더구나 수납계의 고참 직원이 불쑥 나타났을 때의 일, 서무과 급사로부터 출두 연락을 받았을 때의 수간호원의 심상치 않은 표정…… 이러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덩달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추측이며 생각들이 한때 어머니에 대한 걱정까지도 밀어 버리고 그녀의 망막과 머릿속을 점령했다. 천장에 맺혔던 물방울이 툭 하고 머리맡에 떨어질 때 그런 의식에서 일단 단절된다. 그러나 다시 덮친다. 다시 덮치다간, 결국 이것도 저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다. 머리가 몽롱해 온다. 머리가 몽롱해 오며 의식마저 허물어진다. 결국 그녀의 의식은 고열로 인해서 녹아진 것이다.

강남옥 처녀가 다시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녀의 몸뚱이가 김종우 의사와 간호원들에 의해서 그녀의 어머니 곁으로 옮겨졌을 순간이었다. 날카로운 소리에 눈이 번쩍 띄었다.

"그저 보고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김종우 의사가 그녀가 누워 있던 빈 매트를 발로써 냅다 밀어 버리며 괜히 죄도 없는 간호생을 보고 투덜대고 있었다.

"인부 시켜, 수납계 그 늙다리한테 딱 갖다 보이고서 치워 두래! 알았어?"

아직 경험이 없는, 실습 간호생은 어리둥절하고 있다.

"빨리 그러라니까!"

김종우 씨의 말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진다. 수간호원이 간호생더러 뭐라고 타일러 보낸다. 강남옥 처녀는 팔꿈치에 따끔한 것을 느꼈다. 링거 방울이 눈물처럼 눈에 아른거린다. 김종우 의사는 그것을 조절하면서 또 씨부렸다.

"저희들은 턱도 아닌 것들을 데리고 와서 관비 치료니 뭐니 하면서……."

"그러기 말예요."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수간호원이 맞장구를 치듯 받는다.

"그 말을 듣고 화를 내는 원장님도 원장님이지 뭐예요."

좁은 병상 위에서, 한쪽은 피 주사를, 한쪽은 링거—다행히 몸피가 여윈 3등 인간이라 좋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차스런 꼬락서니도 오래 가지는 못했다. 이튿날 저녁 오롱댁 심작은둘노파의 몸뚱이는 드디어 병상에서 내려졌다. 뻗어진 것이다.

(중략)

인부들이 돌아간 뒤, 강남옥 처녀는 다시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남의 사정도 헤아려야만 하는 병실에서와는 달리 본격적인 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저 훌쩍거리고 어깨를 추스릴 뿐이 아니다. 소리를 내가며 울었다.

[B] 휘휘한 방 안을, 천장에 덩그러니 달린 바알간 전등 하나가 지켜보고 있었다.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 허물어져가는 제3병동의 한 귀퉁이라도 무너뜨리려는지 우지끈하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다행히 시체안치소의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럴때 누가 문틈으로라도 엿보았더라면, 죽어 있는 시체보다 을씨년스럽게 울어 대는 처녀의 모습에 더욱 질렸을 것이다. 이젠 간호원들도 그녀의 열을 재러 오지 않았다. 의사들도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의 울음을 방해할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널빤지로 된 문짝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아까 그 인부 두 사람이 되나타났다. 약간 주기가 있는 듯한 얼굴들로서 손에 무언가 들고 있었다.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올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손등에는 빗물들이 번질거리고 있었다. 그들에 대한 흔감한 정까지 겹쳤음인지 강남옥 처녀의 울음소리는 더욱 구슬퍼졌다.

나이 늙수그레한 인부 한 사람은 병원 구내에 살았던 모양으로 아침 일찍 부인을 시켜 죽까지 한 그릇 치면하게 갖다 주었다. 우격에 못 이겨 그걸 받아 마시는 강남옥 처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샘솟듯했다. 죽 위에 사뭇 떨어졌다. 3등 인간도 끝내 외롭지는 않았던 것이다.

– 김정한, 「제3병동」 –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0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Q 0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도구적 가치관'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본질적 가치관'의 대립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본질적 가치를 지켜 내려는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휴머니즘을 통해 인간소외와 물신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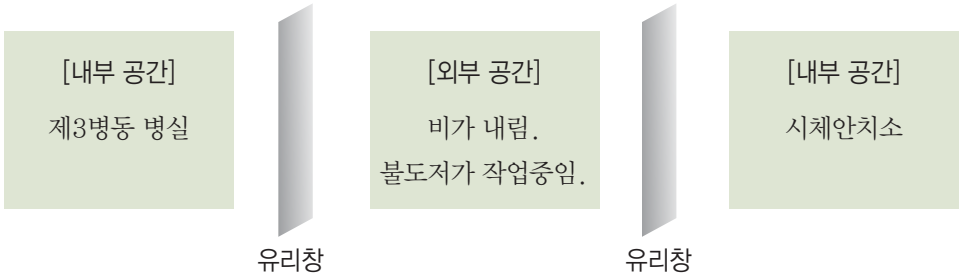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② 어머니를 여읜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종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10 〈보기 1〉을 참고하여 윗글의 [A]와 [B]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보기 1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유리창'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단절시키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의 [A]와 [B]에서는 유리창을 경계로 안과 밖의 공간이 아래와 같이 나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리창'과 유리창을 경계로 한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모습을 등장인물의 상황, 태도, 심리와 연계하여 감상해 봅시다.

보기 2

- **가희** : [A]의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내처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는 병원 생활에 지쳐 외부 공간의 상황에 관심을 보이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 **나희** : [B]의 '불도저 소리도 여전히 멀리서 부르릉거렸다.'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이에 맞서고자 하는 내부 공간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다희** : [A]와 달리 [B]에서 '유리창만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외부 상황이 내부 공간의 인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라희** : [A]의 '극성스럽게 쏟아지는 폭우'와 [B]의 '바깥은 여전히 빗소리다.'는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고 있는 내부 공간 인물들의 심리와 태도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① 가희, 나희 ② 가희, 다희 ③ 나희, 다희 ④ 나희, 라희 ⑤ 다희, 라희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밤 대군이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김 진사의 시재(詩才)를 칭찬하며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이니 모두 경이로운 눈으로 구경하고 칭찬을 아니 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고 한번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 왔다. 당(堂)에 오르는 모양을 본즉, ⓐ무슨 근심이 있는지 용모가 초췌하여 풍정이 사라지고 아주 딴 사람 같았다.

대군이 "무슨 병이 있는가? 약으로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가?" 하고 희롱하니 앉아 있는 모두가 웃었다.

"한미한 유생이 외람되이 대군의 농을 받음인지, 복이 지나고 화가 당도하였는지 근일에는 식사도 전폐하고 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매 왔습니다만……."

김 진사가 그 중 나이 어리므로 말석에 앉았으매 다만 한 벽이 가리웠더라. 밤이 이미 깊으매 손님들이 다 취하여 누웠거늘, 첩이 벽 사이로 엿보니 진사 또한 그 뜻을 알고 귀퉁이를 향하여 앉거늘, 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생각하는 정이 전보다 더하여 능히 목숨을 보존치 못할 듯한지라. ㉠이에 답장을 써 부치고자 하나 청조(靑鳥)*가 없는지라 홀로 가슴만 태울 뿐이더니,

마침 동문 밖에 한 무녀가 있어 영리함으로써 이름을 얻고 궁중에 출입하여 다닌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여겨 그 집을 찾아가니, 그 무녀가 서른이 채 못 되고 자못 자색이 아름다우나 일찍이 혼자되었더니, 진사가 이르는 것을 보고 술과 안주를 잘 차려 대접하거늘 진사가 잔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되, "금일은 바쁜 일이 있으니 명일 다시 오마." 하고 가더니, 다음 날 또 간즉 대접이 여일하나 감히 입을 열지 못하고 또 다시 "명일 오마." 하고 돌아가니, 무녀가 그 행색을 괴이히 여겨 ⓑ의심을 하나 그 용모의 탈속함과 풍채의 준수함을 보고 마음속에 기뻐하더라.

이튿날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 방석을 두루 벌여 펴고 계집종에게 "문 밖에 가 기다려라." 하더니, 이윽고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으매, 진사가 눈을 들어 그 단장의 화려함과 늘어놓은 것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속에 괴이히 여기더니, 무녀 가로되, "오늘 저녁이 어떤 저녁이건대 이러한 옥인(玉人)을 보는고?" 한대, 진사가 뜻이 다른 데 있는지라, 그 말에 대답지 아니하고 ㉡슬픈 표정으로 있거늘, 무녀가 또 돋우어 가로되, "과부의 집에 나이 어린 사람이 어찌 왕래하기를 꺼리지 아니하느뇨?" 진사 가로되, "무녀가 만일 신령한즉 어찌 나의 온 뜻을 알지 못하리오." 하거늘, 무녀 더욱 괴이히 여겨 즉시 신단에 나아가 점쳐 보고 나서 말하되, "낭군아, 진실로 가히 아깝도다. 행하지 못할 계획으로써 ⓒ이루지 못할 일을 하고자 하는도다. 다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 아니라 삼 년이 미치지 못하여 황천 사람이 되리로다."

진사가 울며 왈, "그대 비록 이르지 아니하여도 내 또한 아는 일이라." 하고, 인하여 전말을 자세히 일러 왈, "ⓓ마음속의 원이 맺힌지라. 백약으로 풀지 못하리로다. 다만 바라나니 그대로 인하여 내 편지 한 쪽만 전하여 주면 죽더라도 또한 영광이 되리로다." 무녀 가로되, "천한 무녀가 비록 신을 모시는 일로 인하여 간혹 출입함이 있으나, 부르는 명이 없으면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낭군이 저토록 간청하니 낭군을 위하여 한번 들어가 보리이다." 진사가 기뻐 품속에서 봉투 하나를 내어주며 당부하되, "삼가 그릇 전하여 화를 짓게 말라."

무녀가 응낙하고 받아 가지고 궁에 들어가니, 궁중 사람들이 다 그 옴을 괴이히 여기거늘 무녀가 다른 말로써 대답하고, 인하여 틈을 타 눈 주어 첩을 데리고 후정(後庭) 그윽한 곳에 가 편지를 주거늘, 첩이 받아 가지고 방에 돌아와 떼어 보니 하였으되,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그대를 한 번 봄으로부터 마음이 날고 혼이 흩어져 능히 뜻을 정하지 못하고 매양 서쪽을 향하매 거의 창자가 끊어지도다. 벽 틈으로 주던 글을 공경하여 받아 보기를 다 못하여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글자를 적시는지라 잠을 능히 이루지 못하고 밥을 능히 내리지 못하여 병이 골수에 들매 백약이 무효한지라. 다만 저승에서 만나기를 바라노라. 하늘이 굽어 살피시고 귀신이 도와주시어 생전에 만나 ⓔ이 한을 씻게 하시면 백골난망이라.' 하였더라.

〈중략〉

첩이 보기를 마치매, 소리 끊이고 기운이 막혀 입으로 능히 말을 못하고 눈으로 능히 보지 못하여 눈물이 다하매 피가 나는지라. 사람이 알까 병풍 뒤에 앉아 종일 흐느끼고 그 후로부터 더욱 잊을 길이 없어 미친 듯 취한 듯하여 자연 얼굴과 말에 나타나매 대군이 의심하고 사람의 괴이히 여김을 면치 못하였노라.

– 작자 미상, 「운영전」 –

* 청조(靑鳥): 반가운 사자(使者)나 편지를 이르는 말.

Q 11 위 글을 읽으며 떠올린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②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
③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 진사를 기다리는 모습
④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 진사가 만나는 모습

Q 12 ㉠의 상황에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한자성어는?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② 좌불안석(坐不安席)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Q 13 ⓐ~ⓔ 중, ㉡의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 위 글에 나타난 '김 진사'의 심정을 (가)~(마)와 같이 표현했다고 할 때, 이를 참조하여 14번과 1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 마음을 아시는 사람이라면
시름이 그득하다 하시겠지만
내 마음속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땜에 그러느냐 하시리이라

(나) 뜻밖에 임의 글을 반갑게 받아 보니
곳마다 눈물 흔적 글자가 흐렸고야
달 밝고 고요한 밤엔 생각 더욱 설워라

(다) 비는 온다마는 임은 어이 못 오는고
물은 간다마는 나는 어이 못 가는고
오거나 가거나 하면 이대도록 그리랴

(라) 낙엽에 두 자만 적어 서북풍에 높이 띄워
월명 장안(月明長安)에 임 계신 데 보내고자
임께서 보오신 후(後)면 임도 반겨하시리라

(마) 사랑 모여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고
간장(肝腸)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
일신(一身)이 수화상침(水火相侵)*하니 살동말동하여라

* 수화상침(水火相侵): 매우 곤란한 환경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Q 14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②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③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④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⑤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Q 15 (가)~(마)의 시어를 위 글과 관련하여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②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배경이다.
③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④ (라)의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⑤ (마)의 '수화상침'은 김 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즐비하게 세워진 그곳은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주었다.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 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냄새는, 특히 이런 유의 ⓐ퀴퀴한 냄새는 언제나 남편 몫이었다.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가 말하였다. 썩고 있는 쓰레기를, 막혀 있는 시궁창을 치우지 않고는 그는 견딜 수 없어했다.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잠깐 사이에 후각은 마비되고 언제 냄새가 있었냐는 듯이 코는 말짱해져 큼큼거리던 짓도 멈추었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지는 일에 익숙한 자들에게는 못 견딜 일이라곤 별로 없는 것이다.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서도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박제되어 있는 듯한 동공과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횡대로 즐비하게 늘어서 있을 뿐이다.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마니 얹혀져서 참새, 콩새, 종달새 들이 유리벽 바깥의 인간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이랑에서 정답게 울어주던 바깥세상의 새들과는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임은 무거운 침묵 때문인가. 고목의 둥치를 잘라 시멘트로 탄탄하게 세워두고 정돈된 가지마다엔 이파리 하나 매달리지 않았다. 새들은 두툼한 가지 끝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별안간 후두둑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 앉는다.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이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기도 하고 후이익 후이익 새 울음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부리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의 음울한 눈매를 한 그것과 맞부딪치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방울새야 방울새야, 쪼로롱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곤 했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한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그것은 방울새로 불리워진다. ㉡노래하지 않고 있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에 불과하였다.

"저 새가 바로 방울새란다."

그래도 그녀는 딸애에게 가르쳐 주어야 했다. 한 소절 한 소절을 따라 부르게 하면서 노래를 가르쳐 주었듯이. 간밤에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쪼로롱 고 방울 어디서 따왔니……. 글쎄, 어디서 따왔을까. 방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경주는 물었고 그녀는 방울이 있었음 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 생각해보곤 했었다. 그곳은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일까. 두터운 유리벽 안에 갇혀서, ⓒ푸른 하늘 대신에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나뭇가지 위에 앉아 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했다.

경주는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서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쨍쨍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 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것이다.

"아,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경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한때는 함께 살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없는 아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빠가 아아, 여기 동굴 속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친 줄로만 알았다.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의 닫혀진 입을 대신해 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중략)

㉮ 그 경쾌하고 단순한 노랫가락이 끌고 가는 무거운 발걸음. 쪼로롱 방울새야. 쪼로롱을 부를 때의 아이 입은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고 그들의 걸음은 잠깐 허둥거린다. 쪼로롱 방울새야. 발길을 가다듬으며 그녀는 ⓓ눈꺼풀의 떨림이 시작할 조짐을 느꼈다. 파드득 떨리는 눈꺼풀. 쪼로롱 방울새야. 미끄러질 듯한 걸음. 보이는 모든 것이 파들파들 몸을 떨고 아이는 나풀거리며 달려간다.

그녀는 떨리는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면서 내일 모레쯤에는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이번에야말로 헛손질과 얼룩진 벽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방울새가 저어기에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 배고파하는 동물들의 벌려진 입을 전해주고도 싶다. 경주의 방울새 노래가 듣고 싶지 않느냐고도 물어볼 것이다.

이야기가 술술 풀려만 간다면 아니 그러고도 시간이 남는다면 ⓔ구더기의 강에 대해서도 소상히 들려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머리칼 깊숙이 수십 수백 마리의 구더기가 털구멍에 처박혀 몸을 오그라뜨리고 있는 느낌이라고 제법 세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야 말하지만 이 꿈을 홀로 간직하는 일이 정말 두려웠다고도 말해보자. 말이란 한 번만 눈 딱 감고 시작하면 실타래에서 풀려나오는 명주실처럼 길고도 질기게 계속될 것이었다. 한 번만 입을 열어 모음과 자음을 발음한다면, 한 번만 부리를 벌려 방울 소리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족히 견디어낼 것 같았다.

– 양귀자, 「방울새」 –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16 〈보기〉를 참조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동물원에서 동물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인위적인 것이다. 창공과 대지, 그리고 강과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아왔던 동물들은 이제 자유를 잃고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적 존재가 되는 과정에서 동물원에 갇혀 있는 동물은 새로운 은유를 탄생시키게 된다. 강제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공간과 동물원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① '조류원'의 '새'들의 모습은 주변부로 밀려나 갇혀 있는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해.
② '그녀'의 남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울새'의 의미는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③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④ '갇힘'의 공간으로 설정된 '조류원'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풀림'을 소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⑤ '바깥세상'과 대비되어 있는 '조류원'은 인간을 일상적 삶에서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사회적 공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Q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녀'의 관찰과 그것에서 비롯된 기억과 상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② 대화가 거의 없는 서술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③ 중간 중간에 삽입된 '방울새' 노래는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④ 공간 이동의 경로를 따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⑤ '방울새의 노래'에 대한 사색을 계기로 하여 '그녀'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18 ㉮를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자는 제안을 두고 토론해 보았다. 적절한 의견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보기

물새 같은 아이 하나
모래 위를 달려간다
파도 한 자락이
아이의 눈 속으로 파고들었다
푸른 별이 뜨고
하얀 양떼들이 몰려왔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다
바다는 세상 모르고
즐거운 하루

– 천양희, 「자식」 –

① 진영 : ㉮에 나타난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잘 어울려요.
② 정훈 : ㉮에 나타난 '아이'와 '그녀'의 조화로운 호흡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③ 상일 : ㉮에 나타난, 서사와 결합되어 있는 리듬감 있는 서술의 묘미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네요.
④ 은지 : ㉮에 나타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⑤ 신영 : ㉮에 나타난 '그녀'의 미묘한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 ㉠과 유사한 이미지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의 발상과 의미를 참조하여 짧은 시구를 지어보았다. 적절한 것은?

① 참다못해 가슴 찢고 나오는 비둘기 떼들 바람 속에 몸을 푸는 갈대숲
② 겨우내 노래하던 새 몇 백 년 그럴 양으로 성대가 더욱 트인 새여 노래여
③ 다투어 날다가 서로 날개를 부딪치고 떨어지는 걸 보면 새들의 노래 즐겁지 않다
④ 가을이 말없이 찾아와 붉은 노을 고운 하늘이 멀고 해가 져도 두견이는 아니 옵니다
⑤ 알알한 보석 박힌 물이랑을 잃고 도시의 가슴을 떠도는 저 새는 이제 갈매기가 아니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Q 21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22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Q 23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② ㅇㅇ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Q 24 ㉠의 취지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②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일정 기간 유급 휴가를 제공한다.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④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지상파 방송 광고에 대해 사전 심의를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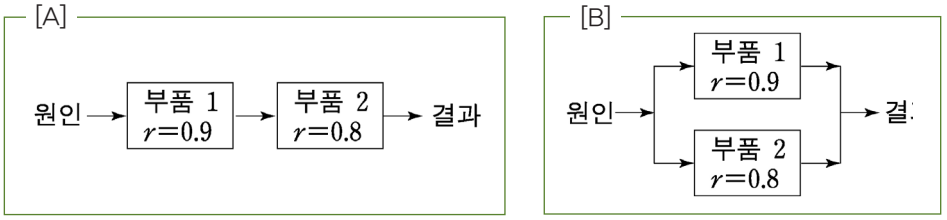
Q 25 밑줄 친 단어 중, ㉡의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② 엊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r=0.9)와 부품 2의 신뢰도 (r=0.8)를 곱한 0.72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0.1^8 \times 0.2 = 0.02$)을 빼서 얻은 0.98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A] 종종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 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 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겹의 쇠줄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겹이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그 부품의 신뢰도)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26 '신뢰도 구조'에 대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직렬 구조에서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②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③ $k=n$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④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에서 더 많다.
⑤ 신뢰도 0.98은 100번 작동에 98번 꼴로 고장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7 〈보기〉가 ㉠을 고려하여 작성한 카메라 사용 시 주의 사항이라 할 때,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볼 수 없는 것은?

보기

본 카메라를 무상으로 Ⓐ보증하는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1년입니다. 본 카메라는 Ⓑ0℃~40℃의 온도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직사광선에 정면 노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강한 전파 에너지가 발생하는 곳에서는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카메라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손실된 녹화 내용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8 원인과 결과가 하나뿐인 직렬 또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 중, 신뢰도 구조가 다른 하나는?

①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②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작동을 멈춘 청소기에 새 퓨즈 1개를 교체해 넣으니 다시 작동하였다.
③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④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
⑤ 이중 제동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제동 장치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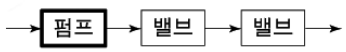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2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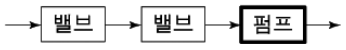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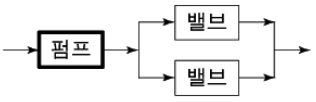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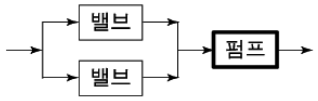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① 

②

③ 

④ 

⑤ 

Q 30 문맥상 ⓐ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불쑥 끼어들었다.
③ 민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각 세포의 형질이 어떤 상황에서 특정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정보는 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에 들어 있다. 따라서 유전 정보의 적절한 발현이 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며, 생물체의 형질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형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근거로 유전 정보가 인간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지능, 그리고 성격까지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이끌어 내었다. 유전자 연구는,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공동체에 도움은커녕 피해만 주므로 도태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극단적인 우생학*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나) 인간과 유전자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연구는, 약 1세기 전 골턴(Galton)이 연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던 중 근래에 ㉠쌍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었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이란성 쌍생아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생아들을 비교한 것으로, 유전적 요인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심증을 굳히게 하였다.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를 통해서, 각종 범죄, 조울증, 정신 분열증, 알코올 중독증 등 주변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 성향들에도 유전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연구에 의미를 부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질병을 대상으로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구체적으로 찾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다) 인간의 유전병은 대략 3,000여 가지로 짐작된다.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낸 것은 단순한 유전병 100여 가지에 불과했다. 그런데 심각한 유전성 신경질환인 '헌팅턴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연구자들은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의 염색체로부터 DNA를 뽑아 제한효소로 잘라지는 패턴을 정상인과 비교한 결과, 그 패턴이 특이하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제4번 염색체에서 헌팅턴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내게 되었는데, 이는 유전학 연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 그러나 아직 많은 유전병은 그 원인 유전자조차 규명되지 않고 있다. 또 원인 유전자를 찾아냈다고 해도, 그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정보가 인간이 가진 46개의 염색체 중 어디에 있으며, 어떤 염기 서열로 되어있는지를 분명히 밝혀내는 일은 쉽지가 않다. 더구나 지능이나 피부색처럼 여러 유전자가 함께 작용하여 형질을 나타내는 경우, 각 유전자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마) 특별한 증세와 관련된 염색체 또는 유전자를 발견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 그 실험 결과들은 분명한 사실로 입증될 만큼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학계에서는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데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인간의 특성이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은 인정된다. 그러나 각각의 유전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정보를 갖고 있는지 밝히는 것과,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은 연구자들의 과제이다.

* 우생학 :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약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Q 31 위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① 세포의 형질은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다.
② 인간의 성격은 유전정보의 영향을 받는다.
③ 일부 유전병의 원인 유전자를 규명하였다.
④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유전병을 치료하고 있다.
⑤ 유전자의 상호 관계 규명은 유전학의 과제이다.

Q 32 ㉠의 결과 중,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는 것은?

① 일란성 쌍생아인 A와 B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② 이란성 쌍생아인 C와 D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흡사하다.
③ 이란성 쌍생아인 E와 F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④ 일란성 쌍생아인 G와 H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판이하다.
⑤ 이란성 쌍생아인 I와 J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라서 성격이 흡사하다.

Q 33 글의 흐름을 고려할 때 〈보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한 유전자 검사를 무분별하게 실시, 그 폐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 △△일보 –

① 글 (가)　② 글 (나)　③ 글 (다)　④ 글 (라)　⑤ 글 (마)

Q 34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전쟁으로 건강한 청년들은 전사하고, 징집되지 않은 약자가 살아남아 2세를 만든다고 생각했다. 결국, 알코올중독자와 신체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하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허약자와 병자의 증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치 정권은 불치병환자나 정신병자 등을 '살 가치 없는 삶'으로 간주하여 30여만 명의 허약자들을 거세하였다. 또 그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지녔다고 하여 유태인이나 반체제인사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①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상당히 활발해졌겠군
② 나치 정권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자의 역할을 맹신했겠군
③ 나치 정권은 유전자 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겠군
④ 나치 정권은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군.
⑤ 나치 정권의 우생할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했군.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등빛이나 특수한 조명 아래에서 본 물체의 색이 자연광 아래에서 다시 보면 다른 색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 눈이 색을 인식하는 능력이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람의 눈은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다. 눈은 명암과 색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있으며 입체감도 느낄 수 있다. 또한 주위 환경의 밝기에 따라 눈 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가까운 물체를 보다가도 먼 곳의 물체를 볼 수 있는 조절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눈은 지름 약 2.3cm의 크기로 앞쪽이 볼록 튀어나온 공처럼 생겼으며 탄력이 있다. 눈의 가장 바깥 부분은 흰색의 공막이 싸고 있으며 그 안쪽에 검은색의 맥락막이 있어 눈동자를 통해서만 빛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눈의 앞쪽은 투명한 각막으로 되어 있는데, 빛은 이 각막을 통과하여 그 안쪽에 있는 렌즈 모양의 ㉠수정체에 의해 굴절되어 초점이 맞추어져 ㉡망막에 상을 맺는다. 이 망막에는 빛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시신경세포가 있다.

이 시신경세포는 원뿔 모양의 '원추세포'와 간상세포(桿狀細胞)로도 불리는 막대 모양의 '막대세포'라는 두 종류로 이루어진다. 원추세포는 눈조리개의 초점 부근 좁은 영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그 세포 수는 막대세포에 비해 매우 적다. 이에 반해 막대 세포는 망막 전체에 걸쳐 분포되어 있고 그 세포 수는 원추세포에 비해 매우 많다. 원추세포와 막대세포는 각각 다른 색깔의 빛에 민감한데 원추세포는 파장이 500나노미터 부근의 빛(노랑)에, 막대세포는 파장이 560나노미터 부근의 빛(초록)에 가장 민감하다.

원추세포는 그 수가 많지 않으므로, 우리 눈은 어두운 곳에서 색을 인식하는 능력은 많이 떨어지지만 밝은 곳에서는 제 기능을 잘 발휘하는데, 노란색 근처의 빛(붉은색 – 주황색 – 노란색 구간)이 특히 눈에 잘 띈다.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경고나 위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색깔은 밝은 곳에서 눈에 잘 띠어 안전을 위해 효율적이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인간의 눈은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하고 강한 노란 빛에 민감하도록 진화해왔을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노란색에 가장 민감함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시신경세포의 대부분은 막대세포들인데, 이 막대세포는 비타민 A에서 생긴 로돕신이라는 물질이 있어 빛을 감지할 수 있다. 로돕신은 빛을 받으면 분해되어 시신경을 자극하고, 이 자극이 대뇌에 전달되어 물체를 인식한다. 그 세포들은 비록 색을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초록색 빛을 더 민감하게 인식한다. 즉, 비록 색깔을 인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두운 곳에서는 초록색 물체가 잘보인다.

이것은 아마도 식물이 초록빛을 띠는 현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즉, 인간이 먹는 음식물의 원천이면서 휴식처가 되기도 하는 식물을 잘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 눈은 그렇게 진화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한 상태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서는 초록빛보다 더 강한 노란색 빛을 이용하여 위험을 감지할 필요도 생겨났을 것이다. 즉, 우리 인체는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 적은 수이지만 원추세포를, 그리고 먹이를 잘 식별하기 위해 많은 수의 막대세포를 따로 이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35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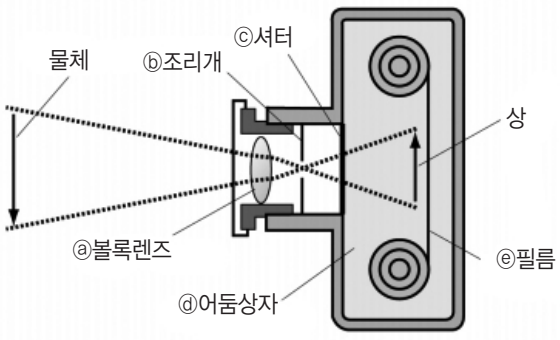
① 빛은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다.
②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③ 빛의 밝기에 따라 색의 구별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④ 사람들이 빛을 감지하는 것은 로돕신과 관련이 있다.
⑤ 비상구의 녹색 표시등은 원추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36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원추세포'와 '막대세포'를 비교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항목	원추세포	막대세포
①	위치	눈조리개 초점 부근	망막 전체
②	세포 수	막대세포에 비해 매우 적음	원추세포에 비해 매우 많음
③	민감한 반응 색	노랑	초록
④	주된 기능	명암 분별	색 분별
⑤	주된 이용	위험 감지	먹이 식별

37 ㉠과 ㉡에 대응하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38~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과거 대부분의 금융 거래는 현금과 수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모든 거래를 카드 한 장으로 처리한다. 이제 음식점, 백화점, 심지어 동네의 작은 슈퍼에서도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카드 기술이 활용되었다.

플라스틱 카드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카드 뒷면에 자기(磁氣)의 성질은 띤 띠(이를 마그네틱 스트립이라고 한다.)를 두르고 있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이보다 훨씬 정교하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 카드로 나눌 수 있다.

[A]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는 현금 카드, 신용 카드 등으로 활용된다. 이 카드는 신원 확인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고유의 번호를 부여하는데, 이러한 고유 번호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스트립에 기억시켜 놓는다. 마그네틱 스트립에는 일반적으로 카드 번호, 카드 소유자 성명, 유효 기간, 사용 가능 금액 등 약 200바이트 분량의 데이터가 저장될 수 있다. 여기서 각 데이터는 마그네틱 스트립의 정보 저장 구역(도메인)에 저장되는데, 도메인의 각 구역은 한 쌍의 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정보의 쌍은 '0'을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쌍은 '1'을 의미한다. 카드 판독의 과정은 먼저 카드의 마그네틱 스트립을 판독기에 통과시키면 철심 주변의 코일에 펄스전류(아주 짧은 주기의 전류)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전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0과 1로만 표현되는 이진코드)로 전환되어 컴퓨터가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용 카드의 경우, 확인을 위한 출력물이나 출력 화면이 생기고 이용자는 여기에 서명을 해야 한다. 현금 카드 이용자는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번호를 입력해야 거래가 가능하다.

스마트 카드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이 카드에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는 다르게 집적회로(IC)칩이 내장되어 있다. 스마트 카드는 이 칩에 의해 고도의 연산 능력과 다양한 정보 저장 능력을 갖게 된다. 스마트 카드는 접촉 방식에 따라 크게 접촉식 스마트 카드와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로 구분된다. 접촉식 스마트 카드는 판독기와의 접촉을 필요로 하는 형태를 말한다.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카드의 표면 접촉부가 판독기의 전기 연결부와 반응하여 데이터를 전달한다. 비접촉식 카드의 경우에는 카드를 안테나 근처에 통과시키면 약한 전자기 신호가 발생하여 카드 안의 데이터를 전송하게 된다. 따라서 이 카드는 버스나 지하철 요금과 같이 빠른 처리가 필요한 곳에 매우 적합하다.

한편 스마트 카드는 거래 절차를 카드 자체의 프로그램이 승인한다는 점에서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차이가 있다. 또한 스마트카드는 중요한 비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설계된다. 이와 달리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보안성이 항상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스마트 카드는 개인의 신체 정보를 보관하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탑재하는 등 많은 곳에서 사용되고 있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38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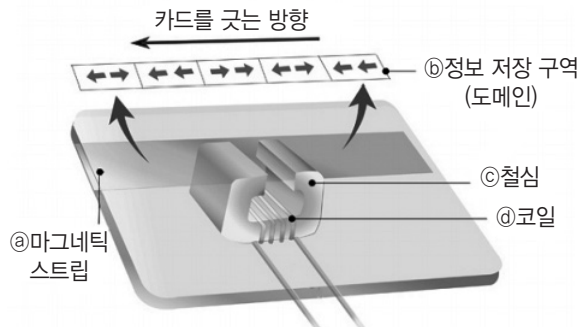
보기

ㄱ. 두 대상 간의 특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다.
ㄴ. 대상이 작동되는 원리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ㄷ.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ㄹ.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9 〈보기〉는 [A]와 관련된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① ⓐ 에는 집적회로 칩과는 달리 200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겠군
② ⓐ의 정보 1차적으로 바이더리 코드로 전환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달이 되겠군.
③ ⓑ가 이루는 짝을 보니 '10010'이라는 정보가 컴퓨터에 인식되겠군.
④ ⓒ와 ⓓ는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는 부분이겠군
⑤ 카드가 ⓒ를 지나면 ⓓ에 펄스전류가 유도되겠군.

40 ㉠을 활용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씨는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자신의 교통카드에 만 원 어치를 충전하였다.
② 서명만 하면 해외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 상품을 △△은행에서 내놓았다.
③ ◇◇ 소매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카드에 저장하였다.
④ ㅁㅁ 기업에서 직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였다,
⑤ ▽▽ 정보회사에서 중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프로그램을 카드에 등록하였다.

Copyright ⓒ 새로배움 연구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B) 소문의 벽 이청준]

정답 : 1 3 5

1번

[정답 맞히기]

① '김 박사'는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 찾았다고 믿는다.

→ "역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별로 기분 좋은 방법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젠 최소한 환자로 하여금 전짓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할 마지막 방법은 찾아 놓고 있는 셈이니까요."를 보면 '김 박사'가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박준'이 느끼는 공포감의 비밀을 밝힐 방법을('박준'으로 하여금 스스로 전짓불의 내력을 포함한 모든 비밀을 털어놓게 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나는 필시 박준의 소설들과 전짓불 사이엔 뭔가 썩 깊은 상관이 있는 듯 한 예감에 사로잡히며 은근히 김 박사를 권해 보았다.'를 보면 '나'가 '김 박사'에게 '박준의 소설 읽기'를 권하는 이유는 '김 박사'의 치료 방안에 대해 '나'가 무언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느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와 관련해 " '김 박사'의 말을 들은 '나'는 그의 치료 방안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

→ '"글쎄, 나 역시도 어젯밤 우연히 그런 발작이 나기 전까지는 환자가 특히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를 알아내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 한데 어젯밤 발작을 보고는'을 보면 '어둠 속 전짓불'에 의해 '박준'이 '발작'을 일으킨 사건을 '김 박사'가 직접 경험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 '박준'이 어둠 때문에 발작을 일으킨 일이 있음을 '김 박사'는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를 보면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전짓불 뒤에서 일방적으로 던져진 질문에 대해서 어찌되었든 답을 하긴 해야 하는데 도무지 경찰대의 편이라고도 혹은 공비의 편이라고도 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머니'의 입장과 관련해 "'어머니'의 입장이 절망적인 것은 아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 '박준의 말은 거기서 일단 끝나고 있는 듯 보였다. 그리고 신문이 찢어져 나가 버린 것도 거기서 부터였다.'를 보면 '나'가 읽은 신문 기사의 내용은 현재의 '박준'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기에, '나'는 기사를 다 읽고 난 후 속으로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다. 따라서 '나'와 관련해 "신문지 조각을 읽은 '나'는 궁금해 하는 사실과 기사의 내용이 거리가 있어서 실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번

[정답 맞히기]

③: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 '내가 소설을 쓰고 있는 것이 마치 그 얼굴이 보이지 않는 전짓불 앞에서 일방적으로 나의 진술만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이다.'를 보면 '박준'이 소설을 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억압을 느꼈고, 이때의 억압은 '박준'이 과거에 경험했던 억압과 '일방적 강요'라는 점에서 유사했기에, '박준'이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연관 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의 '박준'은 더 이상 한국 전쟁 당시 고향 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떨던 어린 '박준'이 아니기에 누군가가 '박준'에게 어둠 속에서 전짓불을 쏘이며 무언가를 강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방적 강제에 의한 억압'이라는 점에서 '박준'이 현재의 상황을 과거의 상황과 유사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박준'은 어쩌면 현재 느끼는 공포심의 원인을 상황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자신도 모르게 과거에서 찾으려 했고, 그 결과 과거의 공포심의 원인인 '어둠'과 '전짓불'을 현재에도 ('어둠'과 '전짓불'에 의한 위협이 가해질 가능성이 없는 현재) 두려워하게 되었을지 모른다. 즉 현재 '박준'이 '어둠'과 '전짓불'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현재의 억압의 상황과 과거의 억압의 상황을 유사하다 생각하고 그럼으로써 현재의 공포심의 원인을 자신도 모르게 과거의 공포심의 원인과 동일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어둠과 전짓불'을 두려워하는 지금의 '박준'의 모습과 관련해('어둠 속 전짓불을 보고 발작을 일으킨 사건'과 관련해), 현재의 상황과 과거의 상황과의 연관을 통해(현재의 경험인 '소설쓰기의 공포'와 과거의 경험인 '전짓불의 공포'의 연관을 통해) 그 원인을 찾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주인공의 두 경험을 연관 지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단서를 제공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

→ '어렸을 때 겪은 일이지만 ~ 우리 경찰대와 지방 공비가 뒤죽박죽으로 마을을 찾아드는 일이 있었는데,'를 보면 '우리 고향'이라는 제한된 지역을 배경으로 하여 '나'의 과거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막연히 '우리 고향'이라고만 서술할 뿐 정확한 지명이 서술되어 있지 않고, '공간'으로서의 '우리 고향'이 지니는 의미가 딱히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부각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

→ 하지만 어머니는 상대방이 어느 쪽인지 정체를 모른 채 대답을 해야 할 사정이었다. 어머니의 입장은 절망적이었다. 과거의 이야기를 서술함에 있어서 '나'가 자신의 주관을 개입시켜 당시

의 '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다.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과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 시점에서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짐작하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

→ '그런데 나는 요즘 나의 소설 작업 중에도 가끔 그 비슷한 느낌을 경험하곤 한다.'를 보면 '박준'의 '소설 작업'이라는 새로운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공포심을 매개로 '박준'의 '과거 전짓불 경험'과 '현재의 소설 쓰기'가 연결되고는 있지만 두 이야기는 엄연히 다른 이야기이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해 "동일한 사건을 다각적으로 구성하여 사건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열어 놓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이질적인 시선을 대비해 가며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다.

→ 이질적인 시선과 역사적인 사건의 전모 둘 다 드러나지 않고 있다.

3번

[정답 맞히기]

⑤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

→ '당신은 아까 내가 위험한 질문이라고 한 말의 뜻을 아직 잘 알아듣지 못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내가 좀 더 설명을 하겠다……. 아마 기자의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연하고 있는 모양이었다.'를 보면 '위험한 질문'은 이하로 이어지는 '박준의 인터뷰의 내용'의 끝부분을 통해서 '(전짓불의 기억에서 비롯되는)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질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위험한 질문'은 과거의 공포를 연상시키고 자극한다는 점에서 '중략' 앞부분의 '어둠'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문제 37번의 <보기>를 참고하면, '박준'과 같이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정신적 외상을 겪고 있는 경우 정신적 병증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기억을 들추어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때 '말문'을 트게 하는 것은 '억압된 기억을 해방시켜 환자로 하여금 상처를 직접 대면하게 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과거의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워질 경우 '어둠'과 '위험한 질문'은 더 이상 '박준'에게 과거의 공포를 연상시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위험한 질문'은 '어둠'과 마찬가지로 회피의 대상이 아닌 적극적인 극복의 대상이다. 그러므로 '위험한 질문'과 관련해 "정신적 외상의 최초 원인을 밝히기 위해 '김 박사'가 '박준'의 과거 기억을 진술하게 할 계획을 세웠다면, 이는 '위험한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말문 트기 방법을 모색한 결과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

→ "하지만 어젯밤 박준이 전짓불을 보고 놀랐던 것만으론 ~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 아직 설명할 수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를 보면 '나'가 '박준'에 대한 현재의 '김 박사의 진단'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혹은 '진단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지적하고 있다. '박준'이 느끼는 '전짓불의 공포'는 '일방적인 진술 강요'라는 억압적 상황에서 한 개인이 느낀 공포이자 그에서 비롯되는 고통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 37번의 <보기>를 참고할 경우, 일방적 강요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고통과 상처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발생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준'의 공포는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공포만이 아니라 당시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했던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함께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공포와 고통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박준'과 관련해 "'전짓불의 공포'를 강하게 느끼는 '박준'은, 일방적 진술을 강요하는 듯한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고통 받는 이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전짓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

→ '문학 행위란 어떻게 보면 한 작가의 가장 성실한 자기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를 보면 '박준'은 '전짓불의 공포'를 '소설 쓰기의 공포'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제 37번의 <보기>를 참고할 경우 '전짓불의 공포'에서 비롯된 '박준'의 '정신적 외상'은 '말문트기'를 통해 치유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말문트기'는 '잠재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을 드러내서 직접 대면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러한 '말문트기'는 소설의 경우 '작가가 소설을 통해 자신에 대해 성실하게 말하기' 즉 '자기 진술'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다. 따라서 '자기 진술'은 '말문트기'에 상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 진술'과 관련해 "'전짓불의 공포'와 '소설 작업'의 관계에 주목해 보면, 소설 쓰기를 통한 '박준'의 '자기 진술'은 치유 방법으로서의 말문 트기에 상응하는 것이겠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그런데 나는 지금 어떤 전짓불 아래서 나의 진술을 행하고 있는지 때때로 엄청난 공포감을 느낄 때가 많다.'를 보면 현재 '박준'이 처한 상황이 '강제적 억압에 놓여 있는 상황', 즉 솔직한 '자기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일종의 '박준'의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억압적 상황의 유사성'이라는 점에서 '박준'이 '과거의 전짓불의 공포'와 그에서 비롯된 '정신적 외상'을 그때로부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현재에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자기 진술'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박준'의 고백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자기 진술'의 상황 속에서 정신적 외상이 환기된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겠군.

→ '나는 지금까지도 그 절망적인 순간의 기억을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가려 버린 전짓불에 대한 공포를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다.'를 보면 현재의 '박준'이 보인 '어둠'에 대한 공포와 '전짓불'에 의한 발작이 모두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과거의 전짓불의 공포에 대한 기억', 즉 '기분 나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박준'의 이러한 '기분 나쁜 기억'은 남과 북의 대립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사회적 배경 속에서 발생한 것이기에, '박준'의 정신적 외상과 관련해 "유년의 '기분 나쁜 기억'이 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 상황과 관련되었다는 설정을 통해, '박준'의 정신적 외상이 사회적 차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 문제 37번 <보기>의 '…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공동체의 위기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외상 …' 참고 - 알 수 있겠군"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또 다른 고향, 자화상2, 멸치**]

정답: 3 5 2 4

4번

[정답 맞히기]

③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가)에서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를 보면 자아를 성찰하고 있던 화자의 마음이 처음에는 '답답하고 어두운 방' 같았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서, '우주'처럼 넓어진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방'과 '우주'는 서로 대조되는 공간이다. 또한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를 보면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백골로 상징된 부정적 자아를 극복한 후, 긍정적인 면만을 지니게 된 화자가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이러한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은 부정적인 자아를 아직 떨쳐내지 못한 채 자아 분열의 상태에 머물러 있던 1연의 '고향' 혹은 2연의 '고향의 어둔 방'과는 대조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대조되는 공간들을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를 보면 인가의 안마당과 눈발의 대비가 드러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다)에서 '바다의 무늬는 뼈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갔던 것이다'를 보면 딱딱하게 굳은 멸치의 겉모습에는 분명 굳기 전 멸치의 몸을 이루고 있던 등과 지느러미의 흔적이 남았을 것이다. 화자는 바로 이 흔적을 보며, 본래 멸치가 지녔을 '바닷속 물결'과도 같았던 삶을 떠올렸을 것이기에, '바다의 무늬'는 멸치의 이러한 '바닷속 물결과도 같았던 삶'을 가리킨다. 따라서 멸치가 바다의 무늬 그 자체의 삶을 살았던 공간인 '바닷속'과, 멸치의 물기와 생명을 앗아가 버린 바람과 햇볕의 공간인 '바다 밖'은 의미상 대조되는 공간이다. 그리고 바다 밖으로 강제로 끌려온 멸치를 화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 '자유와 생명의 공간인 바닷속'이다. 따라서 이 시에 대해 '공간의 대비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가), (나), (다) 작품 모두 영탄법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동일한 시행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자아내고 있다.

→ (가)의 '~것이냐', '~가자' (다)의 '~것이다'를 보면 시어의 반복은 존재하지만 (가), (나), (다) 작품 모두 시행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았다.

④ 과거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리움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 (가), (나), (다) 작품 모두 과거에 대한 회상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⑤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가), (나), (다) 작품 모두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5번

[정답 맞히기]

⑤ (가)의 '방'은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나)의 '먼지평선'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을 상징하는군.

→ (가)에서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를 보면 '방'과 '우주'가 공통적으로 화자의 마음 상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대상들이다. 특히 '방'의 경우 수식하는 말이 '어둔'으로 되어 있기에, '방'에 대하여 '화자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

→ (가)에서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를 보면 점점 사라지는 백골을 화자인 '나'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 28번 보기>를 통해, '백골'이 '자아 성찰을 하며 시선을 내면으로 돌린 화자가 발견한 자신의 부정적 면모'임을 확인할 수 있기에, '백골'에 대한 화자의 태도인 '들여다보며'와 관련해 "'들여다보며'에서는 '백골'로 상징화된 부정적 자아를 향한 화자의 내면의 시선을 확인할 수 있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가)의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

→ '어둠을 짖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를 보면 어둠을 향해 짖는 지

조 높은 개는 '나'로 하여금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면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역할을 하기에, '지조 높은 개'와 관련해 "'지조 높은 개'는 자아의 부정적인 모습과 대비되어 화자를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군"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군.

→ '전신이 검은 까마귀, 까마귀는 까치와 다르다.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저 형형한 눈'과 시의 제목이 '자화상'인 점을 고려하면,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화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마른 가지 끝에 높이 앉아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을 가진 까마귀'에 대해 먼저 말하고 있다. 까마귀의 이러한 모습은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이 지향하는 바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따라서 까마귀의 이러한 모습은 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삶,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먼 설원을 굽어보는 '형형한 눈'은 바람직한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나)에서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는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그대 차라리 눈발을 뒤지다 굶어 죽을지언정 결코 까치처럼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진 않는다.'를 보면 '인가의 안마당'은 손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타고난 자연의 본성을 비굴하게 포기해야 하는 공간이다. 이에 반해 '눈발이 날리는 설원'은 먹이를 구하기 힘든 공간이지만, 오히려 타고난 자연의 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가의 안마당'과 '눈발이 날리는 설원'은 대비되는 공간이며,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에 대해 화자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가의 안마당을 넘보는 까치'에 대해 '화자가 단절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6번

[정답 맞히기]

②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

→ '겨울 되자 온 세상 수북이 ㉠눈은 내려 저마다 하얗게 하얗게 분장하지만'을 보면 '분장'이라는 단어를 통해, 눈이 만들어내는 하얀 세상이 진짜가 아닌 가짜의 세상, 허위의 세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눈'과 관련해 '본질을 가리는 속성을 통해 세상의 허위를 암시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① 충만한 느낌을 통해 평온한 삶을 드러낸다.

→ '눈' 에서는 충만한 느낌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분장하지만'이라는 단어를 통해 '눈'으로 분장한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 평온한 삶이라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색채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순결한 정신을 드러낸다.

→ '하얗게 하얗게'를 통해 색채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화자의 순결한 정신이 드러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하강 이미지를 통해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 준다.

→ '눈은 내려'라는 부분을 보면 하강 이미지가 쓰였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연약한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⑤ 역동적 이미지를 통해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

→ 화자는 '눈'이 내리는 것을 '분장하지만'이라고 표현하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7번

[정답 맞히기]

④ [D]는 바닷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마른 멸치의 몸에 남은 무늬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 '지금 젓가락 끝에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를 보면 반찬으로 조리되어 식탁 위에 올라온 멸치를 보며, 화자는 멸치의 과거 혹은 멸치 본래의 삶을 상상하고 있다. 즉 '멸치에는 ~ 한 바다가 있고, ~ 한 물결이 있다'라는 표현이 화자의 상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바다 물결의 실제 움직임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A]에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었다'를 보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멸치의 모습은 어느 곳으로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던 모습이다. 이러한 멸치의 모습은 '무수한 갈래의 길'을 지날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멸치 떼의 유유한 움직임은 '무수한 갈래의 길'과 연결되어 바닷속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② [B]에서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

→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를 보면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바닷속 멸치의 자유를 강제로 빼앗은 대상들이자 바다 밖의 존재들이다. 따라서 " '그물', '햇빛의 꼿꼿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외부 세계의 폭력성을 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C]는 멸치가 본래의 속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를 보면 바닷속 물결과도 같았던 멸치가 어떻게 해서 본래의 속성을 잃고 딱딱한 반찬이 되어 식탁 위 접시에 담기게 되었는지의 과정이 순차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⑤ [E]는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를 보면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 멸치의 모습'은 멸치의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화자가 상상한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화자의 이러한 상상은 멸치가 빼앗긴 본래의 생명력에 대한 아쉬움 혹은 이러한 생명력을 다시 찾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한 것이다.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 파도와 해일은 거침없이 자유롭고 생명력이 강한 인상을 준다. 그런데 파도와 해일은 물결이 모여 이루어진 것이고, 물결은 이 시에서 멸치와 같은 의미를 갖는 대상이다. 파도와 해일이 보여주는 생명력은 다름 아닌 멸치의 생명력이기에, 이 시에 대해 " '파도'와 '해일'의 움직임을 통해 멸치가 본래 지녔던 생명력을 환기하며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다.

[**2017학년도 사관학교 입교시험 39-41**]

정답 : 2 1 2

8번

[정답 맞히기]

②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노출하고 있다.

운전사는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 명령, 아니 인간의 강하고 약함이 한꺼번에 실감되는 그러한 경황이랄까?

→ 비가 세게 내려치고 있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트랙터 운전자가 '필시 물에 빠진 생쥐 꼴이 됐을 테지.'라는 생각을 가진다. 이런 서술에서 서술자가 작중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 즉 판단을 드러내고 있다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을 병치하여 극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 사건의 병치

→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별개의 두 사건을 보여주는 것. 소설에서는 병치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사건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 두 장면(강남옥이 매트에 누워서 진료를 받는 장면, 어머니가 죽는 장면)이 등장하지만 이는 시간차에 의해서 등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사건을 역전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고 있다.

→ 사건의 역전적 구성은 시간이 순차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닌 회상 등으로 시간이 거꾸로 진행되는 구성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면 다음 강의와 교재를 참고하자.

생각하며 감상하기 산문문학편 13p
생각하며 감상하기 산문문학편 4강 소설의 3요소, 구성의 3요소의 이해

그러나 지금 이 소설은 시간이 역행되지 않기 때문에 역전적 구성이라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내는 부분도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소설에서 다른 인물이 해주는 이야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쓴 소설을 읽을 때 그 내용이 소설에 나오면 이를 이야기 속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했다고 한다. 대표적인 기출문제는 다음과 같다.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청준, 병신과 머저리

→ 그러나 지금 이 소설에서는 그런 형식이 나오는 부분이 없으므로 4번은 적절하지 않다.

⑤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주고 있다.

→ 특정 인물의 시선(입장)을 통해서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해서 보여주는 장면은 없다.

→ 다만 강남옥의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서술한 부분은 있다.

강남옥 처녀는 시종일관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중략) 녹아진 것이다.

9번

[정답 맞히기]

① 수납계 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화를 내는 원장을 비난하고 있는 '수간호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군.

서무과 급사가 들어오더니 수간호원을 보고서,
"수혈 끝나는 대로 서무과장이 좀 오시래요."
"왜?"
수간호원은 급사의 표정을 훑었다.
"글쎄요……."
급사는 그저 그럴 내기다.
'쳇, 매트 얘길 테지! 그 여우 같은 늙정이가…….'
일러바친 게로군 싶었다.

→ 수간호원이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이었다면, 서무원 급사에게 '여우 같은 늙정이가...'라는 말을 안 했을 것이다. 지금 수간호사가 언급한 여우 같은 늙정이는 서무과장이다. 서무과에서는 강남옥이 무전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눈치 채고 있는 상황에서 수간호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부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② 어머니를 여읜 '강남옥 처녀'에게 향불과 죽을 제공하는 '인부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중시하는 휴머니즘적 인물이군.

"처녀가 혼자서 울고 있는 걸 보니……."
위로차 온 모양이다.
"그양 올 수도 없고, 암매 향불도 미처 못 구했지 싶어서……."
그들은 어머니의 시체에 매달려 있는 강남옥 처녀를 떼놓듯이 하고 향을 피워 주었다. 한 사람은 축 늘어진 포켓 속에서 조그만 초까지 꺼내어 촛불까지 밝혀 주었다.

→ 어머님의 죽음에 슬퍼하던 강남옥에게 촛불을 비춰주고 죽을 사준 인분들은 본질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등 병실에 있는 '3등 인간'은 인간을 등급화시키는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군.
→ 보기에서 인간을 빈부격차에 따라서 1등, 2등, 3등 등급으로 나누고 차별하는 것으로 보아 '3등 인간'은 인간을 이윤 추구의 도구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온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3등 인단은 물신주의에 의해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병원이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 추구에 매몰된 공간으로 변질된 현실은 도구적 가치관이 팽배한 근대화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군.

<보기>
병원은 근대화가 양산한 불구화된 심성의 소유자들에 의해 도구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다.

→ 병원은 도구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는 곳으로, 인간을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현대의 한 단면을 보여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⑤ '강남옥 처녀'를 진정으로 걱정하며 도움을 주는 '김종우 의사'는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과는 달리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는 인물이군.
→ 김종우 의사는 강남옥 처녀를 무전으로 치료해주고 도구적 가치관을 지닌 서무과장과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다. 따라서 김종우 의사는 본질적 가치관을 내세우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10번

[정답 맞히기]
가희

환자들이 불도저의 극성맞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았다.

→ 보기의 서술을 통해 내부 공간의 환자들은 '희멀건'지친 눈으로 외부 환경의 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생각 할 수 있으므로 가희의 말은 적절하다.

나희
→ 불도저 소리가 여전히 부르릉거리는데도 강남옥은 어떤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고 그저 운다. 만약 나희의 말처럼 이에 현실에 맞서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가 보여진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항의 의지가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나희의 말은 적절치 않다.

다희
→ [B]에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았을 때 강남옥도 그저 시체 안치실에서 울고 있었지만 의사와 간호사들은 강남옥에게 오지 않았다. 따라서 창문이 흔들리지 않은 [B]의 경우 외부 상황과 내부 상황의 단절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다희의 말은 적절하다.

라희
→ [A] [B] 모두 비가 내리는데 사람들은 관심만 가지거나([A]) 아예 신경을 쓰지 않을 때도 있다. ([B]) 이를 통해서 내부의 사람들은 외부에 향한 관심이 조금 있을 뿐 외부에 대한 지향이나 지향하지만 두려움에 떨며 망설이는 것은 알 수 없다. 따라서 라희의 말은 적절하지 않다.

보기 중 가희와 다희의 말만 적절하다 생각할 수 있으므로 답은 2번이다.

[2006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44-48]

정답 : 5 1 2 3 3

11번

[정답 맞히기]
⑤ 손님들이 돌아간 후 '첩'과 '김 진사'가 만나는 모습
→ 첩과 김 진사는 편지만 서로 주고받았을 뿐 지문 내에서 실제로 만나지는 못 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있는 모습

첩이 편지를 던지니 진사가 집어 가지고 집에 돌아가 떼어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차마 손에서 놓지 못하고

→ 김 진사가 첩의 편지를 읽고 나오는 감정까지 서술되어 있다.

② 김 진사가 지은 시를 대군이 보고 있는 모습

어느 날 밤 대군이 손님을 청하여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김 진사의 시재를 칭찬하여 그가 지은 시 두 수를 손님에게 보이니

→ 이 장면에서 김 진사의 시재를 칭찬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 대군이 김 진사의 시를 봤다고 할 수 있다.

③ 무녀가 단장을 하고 김 진사를 기다리는 모습

→ 세수하고 교태를 다하여 단장을 꾸미고 화려한 요며 구슬 방석을 두루 벌여 펴고
→ 진사가 또 이르거늘 무녀가 웃고 반가이 맞아 들어와 자리에

앉으매

④ 대군의 심부름꾼이 김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

그 자리에서 대군이 사람을 보내어 진사를 맞아 왔다.

→ 대군이 진사의 집으로 사람(심부름꾼)을 보내어 진사를 모셔왔으므로 심부름꾼이 진사의 집을 찾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

12번

[사자성어 및 어휘 문제]
모르는 어휘 혹은 사자성어는 네이버 사전을 통해 의미를 찾기 바란다. 본질적으로 단어 실력을 늘리는 데에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정답 맞히기]
① 노심초사(勞心焦思)
→ 김 진사는 첩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매우 보내고 싶어 하나(그녀를 생각하는 정>목숨)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애가 탄'다(가슴을 태운다). 이런 상황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는 ① 노심초사이다.

[오답 피하기]
→ 모르는 사자성어와 어휘는 반드시 본인의 힘으로 뜻을 찾아야 본인의 지식이 된다. 선지에 나와 있는 사자성어는 반드시 찾아보길 바란다.

② 좌불안석(坐不安席) -

③ 절치부심(切齒腐心) -

④ 은인자중(隱忍自重)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

13번

[정답 맞히기]
② 의심
→ 그가 슬픈 표정을 지은 이유는 첩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여기서 무녀가 의심을 하는 이유는 자기를 자주 찾아오기 때문인데 여기서 무녀는 진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이는 첩과의 정과는 연관이 없는 말이므로 ②이 정답이다.

[오답 피하기]
① 무슨 근심
→ 이후에 첩이 진사의 마음을 알고 진사에게 편지를 던져 주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가 근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첩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③ 이루지 못할 일
→ 무녀는 점을 치고 그와 첩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 일에 대해 '이루지 못할 일'이라고 한다.

④ 마음속의 원
→ [정답 맞히기] 참조

⑤ 이 한
→ [정답 맞히기] 참조

14번

[정답 맞히기]
③ (다)는 무녀의 유혹에 대한 거부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만약 시조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면, (다)의 주요 내용은 지조와 절개를 강조하고, 방해되는 것에 대한 비판 혹은 거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러나 (다)에서는 첩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임은 어이 못 오는고, 이대도록 그리라)을 보여주면서, 진사의 첩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답 피하기]
① (가)는 대군의 물음에 대한 속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 대군은 진사의 사정을 모르고 진사에게 용모가 초췌해진 이유를 물었다. 그것을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엇 땜에 그러느냐 하시리이라.'라는 대목을 통해 드러내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다.

② (나)는 '첩'의 편지를 받고 난 후의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 임의 글, 즉 첩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설에서 편지를 보고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시에서는 더욱 설워라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진사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④ (라)는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 '월명 장안에 임 계신데 보내고자'라는 표현을 통해 임, 첩에게 편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다.

⑤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 '간장 썩어 물이 되어 두 눈으로 솟아난다'라는 표현을 통해, 진사가 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사랑이 가슴에 피어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임에게 보내는 편지에 있는 내용(그대를 한 번 봄으로써 마음이 날고)을 대체해주고 있다.

15번

[정답 맞히기]
③ (다)의 '물'은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해 주는 소재이다.
→ 물은 임에게 갈 수 있지만 자신은 임에게 갈 수 없는 것으로 자신과 대조적인 속성을 가진 것으로 표현했지, 세월의 무상감을

느끼게 해 주지는 않는다.

[오답 피하기]

① (가)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 지문을 보면, 진사의 마음은 첩을 만나고 싶으나 못 만나는 심정으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가)에서 진사의 시름은 '첩'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나)의 '밤'은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심화하는 배경이다.

→ 글씨가 흐린 편지를 '달 밝은' 밤에 보면서 이를 더욱 선명하게 느끼고 고요한 배경에서 편지에 대해 집중을 시켜주면서 첩에 대한 그리움을 시켜준다고 볼 수 있다.

④ (라)의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 서북풍은 낙엽, 즉 편지를 임에게 전해주는 존재이다. 소설에서 진사의 편지를 무녀가 전해줬으므로 서북풍은 무녀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⑤ (마)의 '수화상침'은 김 진사가 처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 (마)는 '첩'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진사의 심장을 드러내고 있다.

→ 여기서 일신이 '수화상침'한다고 했으므로 편지를 보낸 발신인이 수화상침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으로 김진사가 처한 상황을 간략히 알 수 있다.

[2006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30-34]

정답 : 3 4 2 3 5

16번

[정답 맞히기]

③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 속에 갇혀 있는 '새'들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는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 새들이 미동도 않고 울지도 않는 것으로 순응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나 <보기>에서 동물원의 동물들을 '자유를 잃은 주변적인 것'을 상징한다고 했다. 따라서 새들이 이런 행동을 보인 것은 주어진 환경에 순응한 것이 아닌 주변부 존재로 밀려나는 과정에 보이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조류원'의 '새'들의 모습은 주변부로 밀려나 갇혀 있는 자들의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집작할 수 있게 해.

→ [정답 맞히기] 참조

② '그녀'의 남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는 '방울새'의 의미는 암울한 사회적 상황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녀는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말로 들린 까닭이었다.

→ 위의 내용으로 추론했을 때, 그녀는 방울새를 남편으로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조류원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지문 초반부의 서술을 통해서 아버지와 방울새 그리고 암울한 사회적 상황을 연관시킬 수 있다.

④ '갇힘'의 공간으로 설정된 '조류원'을 배경으로 삼은 것은 '풀림'을 소망하는 작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봐야겠지.

→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 그녀는 떨리는 눈두덩을 지그시 누르면서 내일 모레쯤에는 남편을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는다.

→ 작가는 조류원에 갇혀 있는 방울새를 바라보며 '남편을 찾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②번의 해설에서 적었듯이 방울새를 아버지와 관련시켜 생각해보면 이는 '풀림'을 소망하는 작가 의식이 반영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⑤ '바깥세상'과 대비되어 있는 '조류원'은 인간을 일상적 삶에서 강제적으로 격리시키는 사회적 공간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여.

<보기>

→ 자유를 잃고 주변적인 것으로 밀려났다. 이렇게 철저하게 주변적 존재가 되는 과정

→ 강제에 의해 주변부로 밀려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적 공간과 동물원은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보기>의 서술로 미루어 보아 선지의 내용은 적절하다 할 수 있다.

17번

[정답 맞히기]

④ 공간 이동의 경로를 따라 하나의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 일단 지문 상에서 공간적 배경은 움직이지만 각 공간적 사건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인과적으로, 즉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을 낳는 방식으로는 전개되고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그녀'의 관찰과 그것에서 비롯된 기억과 상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가로 세로 일 미터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즐비하게 세워진 그것은

→ 그녀는 문득 남편을 생각했다.

→ 이 부분을 포함해 다른 부분을 보더라도 이 지문은 그녀의 관찰과 상념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대화가 거의 없는 서술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녀'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방울새가 저어기에 살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해도 좋다.

→ 그녀는 방울새를 보며 남편을 떠올릴 때 방울새에 관한 이야

기를 해도 좋다고 한다. 그렇다는 말은 그 전에 그녀는 이 이야기에 대해 말을 못 하고 있다는 것과 동치이다. 따라서 선지의 서술은 적절하다.

③ 중간중간에 삽입된 '방울새' 노래는 작품의 의미를 드러내는데 기여하고 있다.
→ 방울새 노래는 그녀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주변부로 밀려난 존재에 대한 재인식을 시켜주기도 한다(보기 참조).

⑤ '방울새의 노래'에 대한 사색을 계기로 하여 '그녀'의 심리가 변화되고 있다.

>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곧이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녀는 잠시 의아해진다. 그리고 이내 깨닫는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 ②번 해설 참조

18번

[정답 맞히기]

② ㉮에 나타난 '아이'와 '그녀'의 조화로운 호흡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 파드득 떨리는 눈꺼풀, 쪼로롱 방울새야, 미끄러질 듯한 걸음, 보이는 모든 것이 파들파들 몸을 떨고 아이는 나풀거리면 달려간다.

→ 나는 눈꺼풀이 파들거르며 가다듬는 반면에 아이의 걸음은 나폴거리며 가볍다. 이런 속성이 '조화롭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에 나타난 '아이'의 순수하고 맑은 모습에 잘 어울려요.
→ 시에 나타난 '아이'는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다는 서술을 통해 순수하다는 심상을 드러내고 있고, 소설에 등장한 아이는 경쾌하고 밝은 노래를 부르며 나풀거리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통해 순수하고 맑은 이미지를 드러낸다.

③ ㉮에 나타난 서사와 결합되어 있는 리듬감 있는 서술의 묘미가 사라지는 아쉬움이 있네요.
→ 소설에서 아이의 움직임을 '쪼로롱 방울새야, 쪼로롱을 부를 때의 아이', '파드득 떨리는 눈꺼풀, 쪼로롱 방울새야, 미끄러질 듯한 걸음'과 같은 서술을 통해 리듬감 있는 서술을 보여주는데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리듬감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④ ㉮에 나타난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은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 시에서는 '아이는 세상 모르고 웃고 있었다'라는 서술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녀의 심정을 찾기 힘들다.

⑤ ㉮에 나타난 '그녀'의 미묘한 내면의 흐름을 보여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소설에 나온 그녀가 아이를 보며 '허둥댄다', '나풀거리며 달려간다'라는 것을 내면에 서술하면서 그녀의 내면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기 힘들다.

19번

[정답 맞히기]

③ 푸른 하늘
→ 미풍의 보리밭 이랑은 새들이 자유롭게 놀던 곳, 즉 조류원의 바깥 공간, 자유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가장 의미가 가까운 것은 ③ 푸른 하늘이다.

20번

[정답 맞히기]

⑤ 알알한 보석 박힌 물이랑을 잃고 도시의 가슴을 떠도는 저 새는 이제 갈매기가 아니다.
→ 노래하지 않는 방울새는 단지 잿빛 깃털을 가진 한 마리의 날것이라는 서술을 통해, 노래하지 않는 새가 가진 자유의 박탈, 속박된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노래를 하지 않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래는 새에게 있어 본질적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알알한 보석 박힌 물이랑, 즉 본질을 잃은 대상은 더 이상 대상(갈매기)이 아니라는 ⑤이 ㉡과 가장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42번]

정답 : 4 2 2 1 3

21번

[정답 맞히기]

④ 개념을 정의한 후 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하고 필자의 견해를 밝힌다.
→ 1문단에서 반론권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2문단에서 하나의 주장을 한 후 '이에 대해'라는 접속어를 써서 대립되는 주장도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 문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TIP] 독서에서 개념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 평가원의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서는 글쓴이의 생각 역시 중요하다는 점! 필자의 견해, 즉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에도 집중해야 한다.

[오답 피하기]

①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여 공통적인 논지를 도출한다.

→ 반론권 모델을 프랑스식과 독일식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열거하지 않았고, 공통적인 논지 역시 도출하지도 않았다. 프랑스식과 독일식의 모델을 비교했다.

②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한 후 이를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 일반인의 상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내용 역시 나와있지 않다.

③ 새로운 이론을 통해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한다.
→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론보다는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고 재해석했다는 내용도 나타나있지 않다.

⑤ 현상이나 사실을 설명한 뒤 필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견해의 장단점을 분석한다.
→ 3문단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입장을 사실로서 설명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이 마지막 문단에 제시되어 있지만, 반대되는 견해와 그에 대한 장단점 역시 나타나있지 않다.

22번

[정답 맞히기]

② 보도 내용이 진실한 경우에도 반론권을 청구할 수 있다.

→ 4문단 :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있다. 즉 기사 내용이 진실하든 거짓이든 반론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반론권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 2문단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식 모델보다 독일식 모델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프랑스라는 단어가 나오긴 했지만,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다는 말은 확인할 수 없다.

③ 피해자는 반론 보도와 정정 보도를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 주어진 제시문에서 피해자가 반론 보도와 정정보도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냐는 점이다.

④ 반론권은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이나 단체, 조직도 행사할 수 있다.

→ 4번 역시 법인, 단체, 조직이 행사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지 않다. 이런 점 때문에 개념을 끌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기 생각에 행사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필패다. 절대로 필자가 제시해준 개념 외에 끌고 들어오면 안된다.

⑤ 반론권은 문제가 된 보도와 같은 분량의 지면이나 방송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 1문단에서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나타나있다. 하지만 선지에선 '같은 분량'이 제시되어있다. 그래서 ⑤은 틀린 선지가 된다. 평가원의 한 단어 바꾸기 수법이다. 이런 곳에서 학생들의 실수가 나타나니까 조심해야 된다.

23번

[정답 맞히기]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1문단 :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 연구소 B 소장의 인터뷰 때문에 순수한 의견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순수한 의견이 아니라 언론사는 연구 소장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보도를 했고, 그 보도에 반론권을 연구소 소장은 행사한 것이라고 봐야 적절한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1문단에서 제시된 개념을 잘 보면 된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기에 알려준다는 말이 선지에 나타나있다. 따라서 ①은 추후보도이다.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학생들이 정답 다음으로 가장 많이 고른 선지이다. 많은 손해가 나타났고, 사실 관계라는 단어 때문에 선택했을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직접 반박하지도 않았고,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고 있다. 따라서 ③은 정정보도이다.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③과 같이 확인 결과 알려드린다고 나타나있다. 앞과 같은 이유로 ④번 역시 정정보도이다.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 자꾸 피해자가 주장했다는 말만 듣고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잘못된 선택이다. F금융공사가 직접 반박을 해야 반론권이 된다. 언론사가 직접 잘못을 정정했으므로 정정보도에 해당한다.

24번

[정답 맞히기]

①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이란 단어는 제시문에 대해 빠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다. 하지만 평가원은 뒤에 내용을 통해 학생들에게 추론을 원한다. 뒤에 내용을 읽어본다면 ①이 답임을 알 수 있다.

뒤에를 본다면 '일반인이 강자인 언론을 대상을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이라고 제시되어있다. 즉,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동등한 방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오답 피하기]

③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해 구청에서 무료로 놀이방을 운영한다.

→ 저소득층 자녀들이 대적해야할 강자는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그리고 무료로 놀이방을 제공받는다고 해도 그것이 강자에게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③은 틀린 선지이다.

25번

[정답 맞히기]

③ 그는 자기 능력에 상당한 대우를 받고 기뻐했다.
→ 본문에 나온 '②만족한'의 만족하다 뜻은 '흡족하게 여기다'이다. 하지만 ③의 상당한의 뜻은 '어느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다'라는 뜻이다.

[오답 피하기]

① 선을 본 사람이 마음에 차지 않았다.
→ '차다'의 뜻은 '어떤 대상이 흡족하게 마음에 들다'이다.

② 엊그제 비가 흡족히 와서 가뭄이 해소되었다.
→ '흡족하다'의 뜻은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하다'이다.

④ 철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다.
→ '달갑다'의 뜻은 '거리낌이나 불만이 없어 마음이 흡족하다'이다.

⑤ 형의 말을 들은 삼촌의 얼굴이 그리 탐탁해 보이지 않는다.
→ '탐탁하다'의 뜻은 '모양이나 태도, 또는 어떤 일 따위가 마음에 들어 만족하다'이다.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6-50]

정답 : 3 5 4 1 1

26번

[정답 맞히기]

③ $k=n$일 때, 'n 중 k' 구조의 신뢰도는 직렬 구조의 경우와 같아진다.

→ 6문단에서 n개의 부품 중 k개만 작동한다면 정상 가동된다고 정의했다. $k=n$이라면, n개의 부품 중 n개가 작동해야 정상 가동된다는 뜻이다.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시스템이 가동되는 구조는 직렬 구조이다.

[오답 피하기]

① 직렬 구조에서는 부품 수가 많아질수록 신뢰도가 높아진다.

→ 직렬 구조에서 신뢰도를 구하는 방법은 부품 간의 신뢰도를 곱하는 것이다. 구하는 법은 2문단에 나타나있다. 분수의 꼴로 나타내어진 신뢰도를 계속해서 곱한다면 신뢰도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 2문단에서 직렬구조는 모든 부품이 정상 작동해야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고 했다. 부품 수가 많아진다면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2문단에 나타나있다.

②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없이 신뢰도는 동일하다.

→ 3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라고 나타나있다. 즉 부품 간의 상호 작용 유무에 관계있다.

④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는 병렬 구조보다 직렬 구조에서 더 많다.

→ 2문단에서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라고 나와 있다. 3문단에서는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다. 나타나있다. 따라서 직렬 구조보다 병렬구조에서 2개의 부품이 만드는 경로의 수가 많다.

⑤ 신뢰도 0.98은 100번 작동에 98번 꼴로 고장 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문단에서 '신뢰도 0.72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다.

27번

[정답 맞히기]

⑤ Ⓔ

→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신뢰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를 고르라는 것이다. Ⓔ의 손실된 녹화 내용은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고장으로 인한 결과이다.

[오답 피하기]

① Ⓐ

→ 보증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은 보증 기간 동안 신뢰도만큼 카메라가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

→ 카메라가 정상 작동 할 온도 조건을 제시해주고 있다. 제시된 온도 범위를 넘어가면 카메라가 정상 작동 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③ ⓒ, ④ ⓓ

→ 제시된 조건에 노출되면 카메라가 정상 작동 안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28번

[정답 맞히기]

④ 4개의 건전지가 필요한 탁상시계에 3개의 건전지를 넣어도 작동하지 않다가 4번째 건전지를 끼우니 작동하였다.

→ 3개의 건전지만 넣었다는 것은, 모든 부품 중 3개의 부품만 정상 작동했다는 의미와 유사하다. 즉, ④에 나온 탁상시계는 4개의 건전지를 모두 끼워야 작동하는 직렬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도로에 줄지어 선 가로등에서 1개가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 1개의 가로등에서 고장 났지만 나머지 가로등이 다 꺼지지 않았다. 즉, 1개의 부품이 고장 나도 정상 작동하는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② 2개의 퓨즈가 모두 끊어져 작동을 멈춘 청소기에 새 퓨즈 1개를 교체해 넣으니 다시 작동하였다.

→ 2개의 퓨즈에 1개만 넣어도 작동하는 것은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이다.

③ 교실 천장에 있는 4개의 형광등에서 깜빡거리는 형광등 1개를 빼내도 3개의 형광등은 켜져 있었다.

→ 4개의 모든 부품에서 1개의 부품을 제거해도 정상 작동했으므로 병렬 구조를 적용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⑤ 이중 제동 장치가 장착된 승용차에서 제동 장치 하나가 고장 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 이중 제동 장치 중에서 하나가 고장났지만 다른 제동 장치가 작동해 차량이 정지하였다. 따라서 부분의 고장이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병렬 구조임을 알 수 있다.

29번

[정답 맞히기]

→<보기>에 제시된 배수펌프는 물리적으론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 상으론 병렬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보기>에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물리적인 구조는 직렬 구조이기 때문에 ④번과 ⑤번은 될 수가 없다. 물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역류 때는 물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역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펌프가 맨 왼쪽에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펌프가 맨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하자. 맨 오른쪽에 있다면 물이 역류할 때 잡아주는 밸브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밸브가 펌프 왼쪽에 있다고 해서 이미 펌프영역에서 역류한 다음 밸브에 물이 가는 것은 밸브의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펌프가 맨 왼쪽에 있는 ①번이 정답이다.

30번

[정답 맞히기]

① 장미는 많은 꽃들 가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다.

→ ⓐ는 '여럿'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범위의 안'이라는 의미이다. 주어진 선지에 쓰인 '가운데'가 ⓐ와 가장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 피하기]

② 어떤 아이가 두 사람 가운데로 불쑥 끼어들었다.

→ ②의 '가운데'의 뜻은 '양쪽의 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민희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을 돕고 산다.

→ ③의 '가운데'의 뜻은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범위의 안'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진수는 반에서 키가 가운데는 된다.

→ ④의 '가운데'의 뜻은 '양끝에서 거의 같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호수 가운데 조각배가 떠 있다.

→ ⑤의 '가운데'의 뜻은 '일정한 공간의 중앙'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2007년 3월 서울시 교육청**]

정답 : 4 3 5 1

31번

[정답 맞히기]

④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유전병을 치료하고 있다.

→ 세포의 형질은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인간의 성격이 유전정보의 영향을 받은 것은 (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에 의하면 현재 약 3,000가지의 유전병 중 100 여 가지 정도는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밝혀내었으며, (라)에서 유전자의 상호 관계와 역할을 밝히는 것이 어려움, 즉 유전학의 과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마)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학계에서는 아직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32번

[정답 맞히기]

③ 이란성 쌍생아인 E와 F는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격이 판이하다.

→ 위 글의 논지는 유전적 요건이 인간의 성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일란성 쌍생아는 서로 동일한, 이란성 쌍생아는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가진 것을 고려해 볼 때 위 글의 논지에 부합하려면 일란성 쌍생아는 어떤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유사한 성격을, 이란성 쌍생아는 어떤 환경에서 자라더라도 판이한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란성 쌍생아가 동일한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판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33번

[정답 맞히기]

⑤ 글 (마)

→ <보기>는 보건복지부가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함에 있어서 유전자 검사가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확실한 것과 그 폐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보기>를 활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문단은 학계가 유전자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는 것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마)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34번

[정답 맞히기]

①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상당히 활발해졌겠군

→ 우생학은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하고 열약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방치하여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우생학자들은 열약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징집되지 않은 약자, 허약자, 불치병 환자, 유태인 등)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였다. 유전자 연구는 우생학 때문에 한동안 주춤했으나 최근에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을 (가)에서 알 수 있음으로 나치 정권 몰락 후 우생학 연구는 주춤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② 나치 정권의 우생학자들은 유전자의 역할을 맹신했겠군.

→ 나치 정권은 우생학자들은 징집되지 않은 약자가 2세를 만들었을 때 알코올 중독자와 신체허약자만 남겠다고 한탄하였다. 이는 징집되지 않은 사람의 자식은 그 부모의 유전자를 이어받았기에 부모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다.

③ 나치 정권은 유전자 연구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했겠군

→ 나치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반체제인사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이는 나

치 정권이 유전자 연구 (우생학)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음을 알려준다.

④ 나치 정권은 민족마다 독특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보았군.

→ 나치 정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람직하지 않은 성향'을 가졌다는 이유로 유태인을 학살하였다. 이는 유태인과 독일인을 구분하여 민족마다 고유한 유전정보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④은 적절하다.

⑤ 나치 정권의 우생학을 이용한 인권 유린이 상당히 심했군.

→ 나치 정권의 우생학은 불치병환자나 정신병자 등을 살 가치가 없는 삶으로 간주하여 30여만 명의 허약자들을 거세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태인이나 반체제인사 또한 수백만 명을 학살하였다. 이는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를 꾀함과 동시에 열악한 유전자를 가진 인구의 감소를 꾀하는 우생학에 따라 자행된 일이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다.

[2007년 4월 경기도 교육청]

정답 : 5 4 2

35번

[정답 맞히기]

⑤ 비상구의 녹색 표시등은 원추세포의 기능과 관련이 있다.

→ 원추세포는 밝은 곳에서 빛을 인식할 때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며 파장이 500나노미터 부근의 빛(노랑)에 가장 민감하다. 따라서 비상구의 녹색 표시등은 원추세포가 아닌 막대세포의 어두울 때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며 파장이 560나노미터 부근의 빛(녹색)에 가장 민감한 기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빛은 사람이 물체를 인식하는 데 필수적이다.

→ 사람의 눈은 빛이 있어야 물체를 볼 수 있음을 첫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②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 왔다.

→ 인간의 눈은 우리 주위에 가장 흔한 가시광선에 민감하도록 진화되어왔음을 다섯 번째 문단에서 알 수 있다.

③ 빛의 밝기에 따라 색의 구별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 밝은 곳에서는 원추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는데 이 원추세포는 500나노미터 부근의 빛 (노랑)에 가장 민감하다. 따라서 밝은 곳에서는 눈이 노란색 근처의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다. 반명 어두운 곳에서는 막대세포가 제 기능을 다하는 데 이 막대세포는 560나노미터 부근의 빛 (녹색)에 가장 민감하며 따라서 어두운 곳에서는 눈이 초록색 부근의 빛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④ 사람들이 빛을 감지하는 것은 로돕신과 관련이 있다.

→ 로돕신은 비타민 A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시신경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막대세포가 빛을 감지하게 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빛을 감지하는 것은 로돕신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6번

[정답 맞히기]

④ 주된 기능 , 명암 분별 , 색 분별

→ 원추세포는 눈조리개의 초점 부근 좁은 영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그 세포 수는 망막 전체에 분포하고 있는 막대세포에 비해 매우 적으며, 500나노미터 부근의 색인 노랑 색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원추세포는 위험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는 것에 주로 이용되며 색을 분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막대 세포는 망막 전체에 분포하고 있으며, 눈조리개의 초점 부근에만 위치하고 있는 원추세포에 비해 매우 많은 세포 수를 가지고 있다. 이 막대 세포는 과거 인간의 주 먹이였던 식물의 색이 초록색이기에 이를 잘 식별하기 위해 주로 이용되며 명암을 분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④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37번

[정답 맞히기]

② ⓐ ⓔ

→ ㄱ은 수정체를, ㄴ은 망막을 의미한다. 인간의 눈에서 수정체는 눈의 앞쪽에 있는 각막의 안쪽에 있는 렌즈 모양의 기관으로 각막을 통과해 들어온 빛의 초점을 맞추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망막은 수정체에 의해 초점이 맞춰진 빛이 상을 맺는 부분이다. 이를 카메라에 적용시켜 보면 초점을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볼록렌즈가 수정체의 역할을, 볼록렌즈를 통해 들어온 빛이 상을 맺는 필름이 망막의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②가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2007년 10월 서울시 교육청**]

정답 : 1 2 2

38 번

[정답 맞히기]

① ㄱ, ㄴ

→ 이 지문은 두 대상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스마트 카드)간의 특성을 비교, 대조하고 있고, 대상이 작동되는 원리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의 경우 도메인에 저장된 정보가 판독기를 통과하며 바이너르 코드로 전환되어 작동, 스마트 카드의 경우 직접회로가 존재하며 접촉식의 경우 표면 접촉부와 판독기의 전기 연결부가, 비 접촉식의 경우 약한 전자기 신호가 카드 내부의 데이터를 전송하며 작동하게 된다. 따라서 ㄱ, ㄴ이 적절하다.

[오답 피하기]

→ 정답 맞히기 참고

39 번

[정답 맞히기]

② ⓐ의 정보 1차적으로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 전달이 되겠군.

→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면 철심 주변의 코일에 펄스전류를 유도하게 되는데, 이 전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되는 것이지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되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적절하지 못하다.

[오답 피하기]

① ⓐ에는 집적회로 칩과는 달리 200바이트 정도의 정보를 담을 수 있겠군.

→ 마그네틱 스트립에는 카드 번호, 카드 소유자 성명, 유효 기간, 사용 가능 금액 등의 약 200바이트 분량의 정보가 저장된다. 집적회로 칩의 경우는 고도의 연산 능력과 정보 저장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그네틱 스트립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①은 적절하다.

③ ⓑ가 이루는 짝을 보니 '10010'이라는 정보가 컴퓨터에 인식되겠군.

→ <보기>의 마그네틱 스트립의 카드를 긋는 방향부터 도메인을 보면 서로 다른 방향, 서로 같은 방향, 서로 같은 방향, 서로 다른 방향, 서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A]를 보면 서로 다른 방향은 '1'을, 같은 방향은 '0'을 가리키므로 이 카드를 판독기에 통과시키면 '10010'이라는 정보가 컴퓨터에 입력될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와 ⓓ는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는 부분이겠군.

→ ⓒ와 ⓓ는 각각 철심과 코일로 마그네틱 스트립을 판독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 철심 주변의 코일에 펄스전류가 유도되고 이 전류는 마이크로프로세서에 의해 바이너리 코드로 전환, 컴퓨터가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와 ⓓ는 카드의 정보를 읽어내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⑤ 카드가 ⓒ를 지나면 ⓓ에 펄스전류가 유도되겠군.

→ ⓒ와 ⓓ는 각각 철심과 코일로 마그네틱 스트립을 판독기에 통과시키게 되면 이 철심 주변의 코일에 펄스전류가 유도된다, 따라서 ⑤은 적절하다.

40 번

[정답 맞히기]

② 서명만 하면 해외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카드 상품을 △△ 은행에서 내놓았다.

→ ㉠은 스마트 카드이다. 이것은 직접회로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로 접촉식은 판독기에 카드를 삽입하면 표면 접촉부가 판독기의 전기 연결부와 반응하여 전기 신호를 전달하고 비 접촉식은 카드를 안테나 근처에 통과시킬 때 발생하는 약한 전자기 신호가 카드 안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②의 경우 카드를 판독기에 삽입하지도, 안테나를 통과시키지도 않았으므로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오답 피하기]

① ○○○씨는 교통카드 충전소에서 자신의 교통카드에 만 원 어치를 충전하였다.

→ 교통카드는 빠른 처리가 필요한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계산할 때 사용됨으로 스마트 카드 중에서도 비 접촉식 방식을 사용한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③ ◇◇ 소매점에서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가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카드에 저장하였다.

→ 스마트 카드는 200바이트 정도의 정보만을 저장할 수 있는 마그네틱 스트립 카드와 달리 집적회로 칩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의 정보를 다룰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카드에 저장하는 것은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④ □□ 기업에서 직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지문과 같은 생체 인식 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를 발급하였다.

→ 스마트 카드는 생체 인식 정보와 같은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④의 경우는 적절하다.

⑤ ▽▽ 정보회사에서 중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안전하게 전송하

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카드에 등록하였다.

→ 스마트 카드는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따라서 중요 내용을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해 데이터를 암호화 하는 프로그램을 카드에 등록하는 것은 스마트 카드를 활용한 사례로 볼 수 있다.